

야고보서 19번째 말씀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1)

본문 : 야고보 5:1-6

- 1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 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 4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 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 6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부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한 부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불의한 방법이 아닌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선한 일에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 같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고, 그 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그가 부하기 때문에 사로잡힌 롯을 구하는데 엄청난 재물을 사용하였다. **요셉** 같은 사람도 부를 통해서 가족과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가는 것을 살려 냈다. **다윗**도 엄청난 부를 **헌금해서 성전을 짓게 했다**.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보면 금 십만 달란트와 은 1백만 달란트를 헌금 했다. 29:4에서 보면 금 삼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더 드렸다. 다윗이 혼자 드린 헌금이 온백성이 힘을 다하여 드린 헌금의 25배가 된다고 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부자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신약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자로서 예수님니 장례를 부요하게 치렀다. 그래서 요한 웨슬러는 재물관을 세마디로 말했다고 한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열심히 저축하라. 멋있게 사용하라.”

조지 플러나 하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선한 일에 돈을 쓰기를 기뻐한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아사업과 선교사업을 이룬 사람이다. 오늘 날에도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많은 부자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신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 총장과 개인적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총장은 좋은 교수를 모셔 오는 일이나 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아주 넉넉히 공급 받아 학교를 크게 발전 시켰다. 그래서 재선에 있었던 RTS가 샬롯 플로리다 등 여러곳에 학교를 확장 시켰다. 나는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재정을 조달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부를 필요한데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돈을 합당하게 가치있게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그들은 줄거이 헌금한다고 하였다. 오늘 날에도 하나님은 선한 부자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많이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돈 한푼 없이 60년대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때 가난한 한 학생들과 더불어 캠퍼스 복음화 성서 한국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어떤

대교회도 해 낼 수 없는 선교 사업을 이룰 수 있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 했다. 우리가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나님은 많은 선한 부자들을 보내 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이루게 하신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책망한 부자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한편 부자들에게 억울 하게 고난 당한 의로운 사람들을 위로 하는 내용이다. 어느시대나 부자나, 권력자들이나, 재판관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의로운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결코 악압하는 자들이 영원히 그들의 죄를 감출 수 없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갚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본문에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 그들은 마땅히 심판 받을 자들이다.

1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는 이 말씀은 심판의 보좌 앞으로 부한 자들을 불러 내는 외침이다.

“부한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지 돈만 가진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명예나 공직 또는 권위 권력을 오용하는 왕들, 재판관들, 통치자 및 관리자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울고 통곡하라” 사람이나 짐승이 고통으로 심히 슬퍼하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심히 불행하고 고통스런 상태를 의미한다. 개 또는 늑대처럼 살아왔던 그들이 동물처럼 울부짖게 될 심판의 날 그들이 당한 고통을 묘사한 말이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첫째, 이생에 있을 심한 고통과, 둘째 후세에 있을 지옥의 고통 이 두가지를 다 포함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재물을 쌓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누가복음 6:24-25

24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땅에서 누리는 그 쾌락으로 끝나고 더 이상의 누릴 행복이 없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의 울부짖음 뿐이다. 다음 세상에서도 똑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눅 16: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살아서 흥청 망청 쾌락을 누리고 산 것으로 다 끝나고 더 이상의 행복이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 그들은 더 이상 행복이 없는가? 그들이 다음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2.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않는죄.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웃은 즙먹었으며

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야고보는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야고보는 모든 종류의 부를 총 망라하여 열거하고 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허락하신 재물을 굶어 모아 쌓아 둔다. 피조물로서 가장 고상한 행위는 타인의 필요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 재물을 하나님이나 혹은 타인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조차 쓰지 않고 쌓아 두기만 한다. 이것은 큰 죄이다. 내 돈 내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나고 할 줄 모르지만 아무리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았다면 나에게 주어질 수 없다. 돈은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쌓아 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 했을 때 그것이 썩도록 쌓아 둔다면 이것은 큰 죄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부를 다 빼앗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결국은 그 모든 재물을 쓸모 없게 망가뜨리고 마신다는 뜻이다. 사람이 섬리자의 손에서 재물을 가로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빼앗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재물에 녹이 쓴다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았다는 죄의 증거가 된 것이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로 나타내어 현재의 재앙이나 또는 앞으로 임할 영원한 형벌을 가르킨다(참조 시 21:9)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것을 함축한 말이다.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차곡 차곡 쌓아 가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장차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로마서 2:5참조).

우리는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 타인, 혹은 자신을 위하여조차 쓰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은 죄요 무서운 형벌이 임한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재물을 즐기면 즐길수록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할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윈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 하는 모습을 본다.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을 쌓아 두는 것보다 어떻게 재물을 잘 쓸 것인가 연구할 때 적당한 곳에 재물을 쓰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재물을 이 땅에서 잘 사용하는 일처럼 기쁜 일이 없다. 또한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나라를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재물은 잘 사용한다면 재물이 많은 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3. 가난한 자를 착취하여 부를 이룬 죄

4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은 낮동안 부자를 위하여 일하고 저물 때 임금을 받는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부로서, 품꾼 돈을 갚지 못해 땅을 빼앗긴 후 부유한 지주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날 번 것으로 그날 양식을 삼았기에 그들은 간신히 굶주림을 면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다. 품꾼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이 다 굶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살인과 같은 것이다. 부자가 임금을 주지 않음으로 썩도록 재물을 쌓아 둠으로 품꾼을 굶어 죽게 한다면 이것처럼 잔인한 한 것이 없다.

그래서 레위기 19:13절과 신명기 24:14-15에서 삯을 즉각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였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빵을 공급해 준 사람들이 부족함을 인하여 수척해져야 한다는 것보다 더 비열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이 끔찍스러운 일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이는 많은 인간들이 단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자는 첫째 인색하고 둘째, 삯꾼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 죄에 대한 보복은 만군의 주께서 친히 내리신다. 비록 삯꾼이 아무 힘이 없어 부자에게 대항하지 못할지라도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신다는 것이다.

4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는 고난 받고 억눌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절대 권능의 주라는 뜻이다. 힘이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학대한 자는 항상 그 배후에 전능자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남의 눈에 피 흘린 고통을 통해서 부를 이룬자들을 용납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

오늘은 시간이 없음으로 여기까지 말씀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 드리고자 한다.